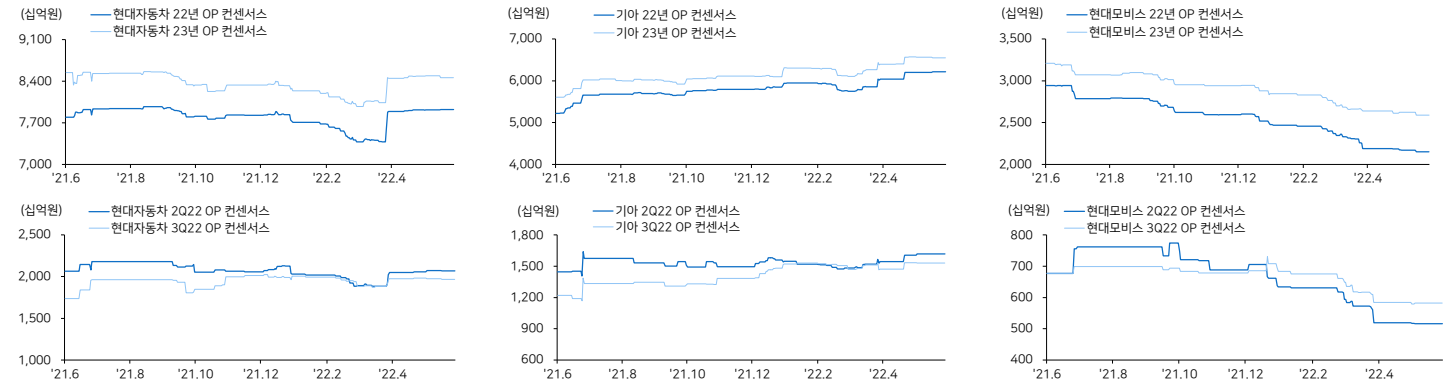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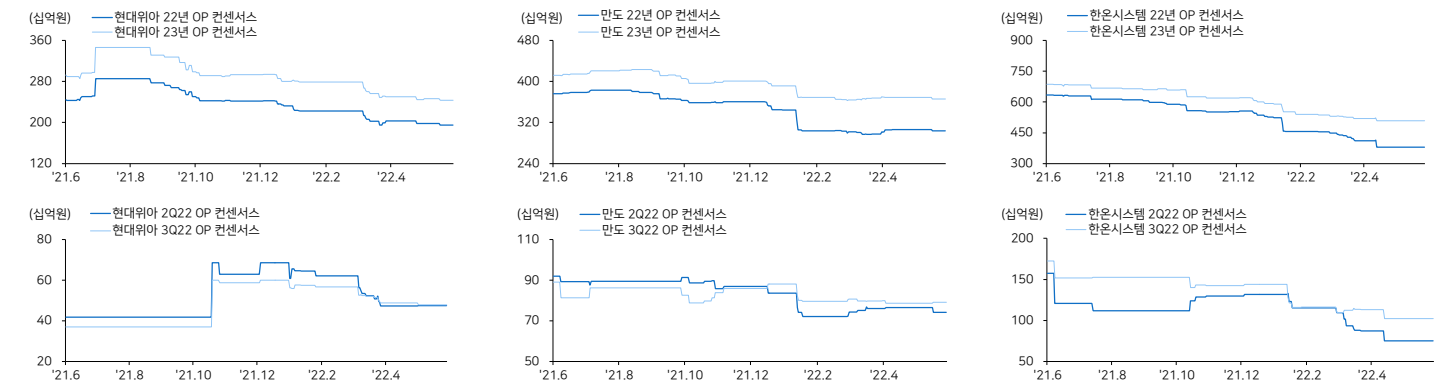


커버리지 컨센서스 추이 차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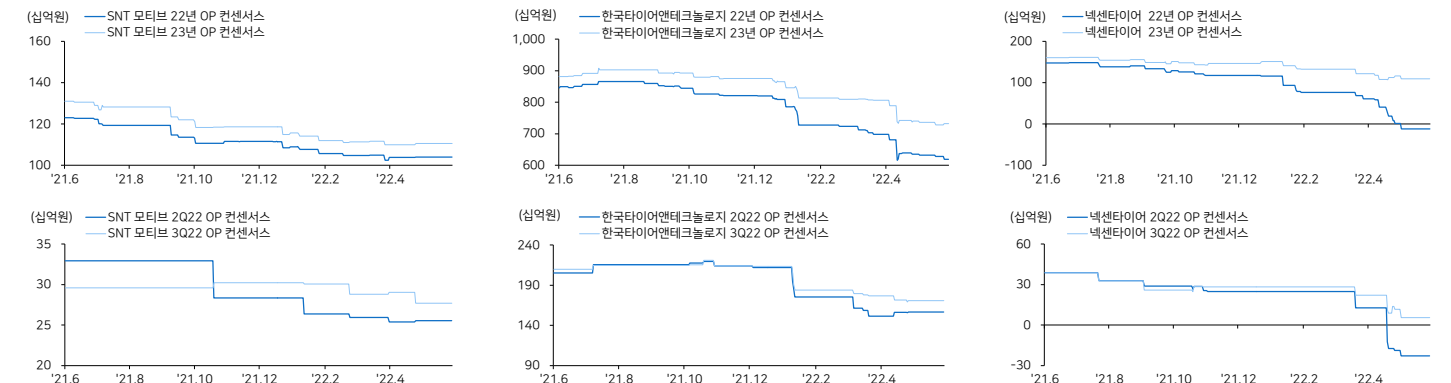
현대차 / 기아 / 현대모비스



현대위아 / 만도 / 한온시스템



SNT모티브 / 한국타이어 / 넥센타이어



자료: Bloomberg,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

국내외 주요 뉴스

현대차, 연구개발본부 조직 개편 단행...SW 제어 담당 부서 '통합' (이데일리)

최근 현대차는 연구개발본부 내에 '차량제어개발센터'를 신설. 연구소 내 각기 다른 팀에 있던 제어가 개발과 관련된 연구인력을 하나로 통합한 것. 이번 조직 개편을 통해 제어를 통해 연비나 전비, 주행 성능 등의 개선을 전망.

<https://bit.ly/3uodhYd>

韓 완성차 5사, 6월 판매량 전년 2.2% 감소...기아만 소폭 늘어 (전자신문)

국내 완성차 업체의 올해 상반기 누적 판매량은 2009년 이후 가장 적은 수준을 기록함. 현대, 쌍용, 르노코리아, 한국지엠의 6월 판매는 각각 yoy -4.5%, -5.8%, -15.2%, -0.7% 감소한 반면 기아는 +1.8% 증가함.

<https://bit.ly/3abLaVf>

Tesla announces just over 250,000 deliveries - its first down quarter in a long time (electrek)

Tesla는 2분기 254,695대 인도, 258,580대 생산량을 발표함. 2분기 공급망 문제와 상해공장 폐쇄로 인해 전분기 대비 인도량은 약 5만대 감소한 것으로 발표. 또한 2022년 6월은 Tesla 역사상 가장 많은 차량 생산량을 기록한 달이라고 언급.

<https://bit.ly/3lr2uT7>

Driverless Cruise robotaxis stop working simultaneously, blocking San Francisco street (The Verge)

GM의 Cruise 로보택시는 지난 화요일 저녁 샌프란시스코에서 작동을 멈추고 몇 시간 동안 교통문제를 일으킴. Cruise는 사전 예약 20분만에 이를 발견했으나 실제로 차량을 옮기는 데 시간이 소요됐다고 해명함.

<https://bit.ly/3nU1Jsh>

현대차 연구직 파업 찬성률, 생산직보다 높아...'성과 분배 불만' (연합뉴스)

지난 1일 현대차의 정의행위(파업) 찬반투표에 40,958명 중 33,436명(재적 대비 71.8%)이 찬성함. 특히 연구직 조합원 찬성률이 생산·기술직보다 더 높게 나타나 이례적이라는 반응. 노조는 6일 파업 일정을 논의할 계획.

<https://bit.ly/3Ao4x87>

카플레이션·금리 인상에... 얼어붙는 美 자동차 판매시장 (국민일보)

원자재 가격 상승과 차량용 반도체 공급난이 촉발한 차량 가격 인상이 판매 침체를 촉발. 여기에 자동차 대출 이자가 평균 5.1%까지 오르면서 소비자의 구매력을 떨어뜨렸다는 의견. 자동차 시장 판도의 방향에 주목이 필요한 시점.

<https://bit.ly/3R90xNh>

GM tops Toyota, Hyundai, Kia volume off 4th straight month on low inventory (Auto News)

6월 SAAR은 1,300~1,380만대로 5월 1,281만대에서 반등했으나 2021년 6월(1,543대)보다는 급격히 감소한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됨. GM의 6월 미국 판매는 토요타를 앞질렀으며 현대차, 기아는 4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임.

<https://bit.ly/3agk1AI>

Volvo to create 3,300 jobs at \$1.25 billion EV plant in Slovakia (Reuters)

중국 완성차 기업 볼보는 약 12.5억 달러를 투자해 슬로바키아에 EV 공장을 신설할 것이라고 언급함. 볼보의 유럽 3번째 공장인 될 예정이며, 2030년 이전 EV만 생산할 것이라는 계획에 따라 EV 전용 공장으로 계획됨.

<https://reut.rs/3abcAL3>

Compliance Notice

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.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%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.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,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.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.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.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.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.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, 대여, 배포 될 수 없습니다.